

도심 사찰에 놀이방 만든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교지도자 양성 및 여성불자들의 폭넓은 신행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10-11월 회성 신총사에서 '1차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15일 이사회를 열고 여성교육, 이동보육시설 설치, 불교여성강좌, 불교여성학 출판물 간행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올해 살림 확정

우선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 초 '대장경속의 여성'이란 제목의 단행본을 3백권 출간해 여성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시할 계획이다. 백도수(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와 박서연(동국대 불교사학 박사) 등 여성 불교학자들이 1년여에 걸쳐 집필한 이 책에는 대장경속에서 나타나 있는 여성 관련 내용들이 폭넓게 소개돼 있어 불교여성학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월 13일부터는 매주 2회에 걸쳐 '결혼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강좌를 연다. 이영호 가정생활개선진흥회 책임연구원이 진행할 이번 강좌에서는 △가정불교 철학 △신용카드 관리법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현대사회와 가정경영 등이 주제가

서 결혼을 앞 둔 여성 불자들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위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월말에는 가정분과위원회 주도로 '가정생활개선교육'이 열리며 6~7월에는 '부모교육' 강좌도 개최한다.

'대장경속 여성' 단행본 보시 리더십 교육·세미나도 계획

불교여성아카데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도 4월에 실시한다. 3개월에 걸쳐 불교 관련기관의 여성 중무원을 대상으로 펼쳐질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진들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훈련, 회의 진행방법, 모의 토론회의 등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여성 불교지도자 양성에 한 몫



을 독특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분과위원회의 '사찰내 놀이방 설치 사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아이들 때문에 법파도 사찰 행사 참가에 제약을 받는 주부들을 위해 도심 사찰내 1일 놀이방 시설을 사찰과 연계해 설치 운영할 계획이어서 주부불자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교육분과위원회는 5월 26일 '국내 불교 여성학 연구 개황' 책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여성불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이외에

◇10-11월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 워크숍에서 이인자 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상임위원들이 올해 펼쳐갈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도 6월에는 '부모교육 강좌'와 11월 7일에는 '여성불자의 날' 행사를 마련한다. 이인자 원장은 "창립 이후 첫해인 만큼 교육 강좌와 세미나 등을 활성화 시켜 여성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큰 사업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 6시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부산 삼광사에 다녔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기도정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집안의 이런 분위기 탓에 친정 오빠들도 일찍 사찰을 찾아가 절을 올릴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하지만 내가 불가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친정 어머니의 병환이었다. 어머니는 5년전부터 병명도 모르는 상태로 몸져 누워 있었다. 여기저기 이듬있는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조금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온 집안식구들이 어머니 때문에 근심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구인사로 보내 요양을 시키고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 기도해

했다. 이 동안에는 가정일 등 모든일을 제쳐두고 오로지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기도에만 집중했다. 절에서의 기도 정진은 한달 넘게 계속했다. 한달이 지난 어느날,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에게 먹이라고 약을 하나 주시고는 미소를 머금고 하늘로 올라갔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니 꿈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지나자 오빠들에게 연락이 왔다. 노인들의 병에 유명한 한의사를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았으며 부산으로 급히 내려 오라고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동래구쪽에 있는 한 의원으로 갔다. 진맥을 본 한의사는 기가 몹시 약해져서 온 몸일 가능성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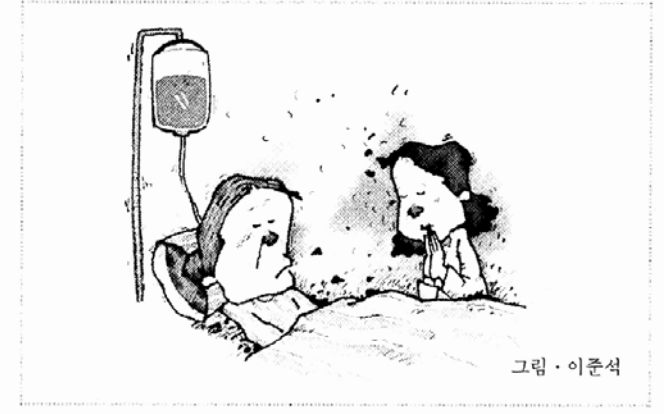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기도 정진중 꿈에서 약병 받고...

볼 것을 적극 권했다. 처음에 가족들은 거품을 못하는 어머니를 먼거리의 구인사로 보내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별다른 처방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한번 매달려 보기로 했다. 오빠들은 생업을 매달려 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구인사로 갔다. 구인사에서 방을 하나 얻어 어머니를 눕혀 놓고 나는 기도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1080 염주를 돌려가며 어머니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매일 5시간씩 기도를 올렸다. 구슬땀이 흘러 방석을 흥벅 적실 정도로 정성껏 절을 했다. '부처님, 어머니를 살려 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병들어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 가시고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회구하며 염주를 굴렀다. 어머니에게도 누워서나마 부처님께 의지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라고 권

하며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주었다. 한의사는 정성껏 치료를 할테니 한 번 믿어보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어머니는 1주일에 두 번씩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는 집에서 <천수경>을 독송하며 계속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3개월을 치료 받더니 어머니는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조금씩 걸어나오면 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는 등 기력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비록 어머니의 병회복을 위해 부처님께 지극 정성을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 이제는 새벽과 밤에 집에서 예를 모실 정도로 불교에 깊이 몰입해 있고, 참다운 불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께서도 항상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며 부처님께 의지하고 계시다. 병명조차 모르고 앓으시던 어머니에게 의사를 만나는 인연을 맺어 주셨으니 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한다. 김연숙(부산시 진구법천동)

불교계 '장한 청소년' 뽑는다

5월 시상... 유공자도 포상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불교계 청소년 단체는 사회 봉사활동과 협력 부문에서 적극적인 활동한 경력이 인정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를 추천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대한민국 장한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포상 계획'을 발표한다

청소년 단신

청담고 IT지원금 받아

종립학교인 청담정보통신고는 16일 정보통신부(이하 정보부)로부터 IT관련학과 지원 대상 학교에 교계 최초로 선정돼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보부는 16일 전국 고교 가운데 IT 관련학과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47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등급 기준에 따라 총 45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청담정보통신고는 지난해에도 1억5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매일 환경지킴이 운동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가 4월1일부터 내년 부처님오신날 전야까지 매일 첫 일요일

따른 것이다. 장한 청소년상의 선정기준은 모험심과 개척정신, 환경의식, 봉사부문 등 7개 부문으로 나뉘며 각 청소년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청소년육성 유공자에 교법사와 공직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은 청소년협의회 홈페이지(www.koreayouth.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시상식은 청소년의달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일마다 낙동강 수질환경 보호운동을 펼친다. 이에 3월 31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입학식을 갖고 4월1일 낙동강 도보순례를 시작으로 13차에 걸쳐 '환경지킴이 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도보순례에는 부산지구 12개 지회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불교 레크리에이션협 개명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0일 조계사 문화교육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불교레크리에이션 보급 발전을 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요정기강좌 총 48회 개최 △6·11월 여름·겨울 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개최 △3·9월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과정 개설 △7월 연꽃 어린이 캠프 개최 △청소년 문화교실 및 성지순례 상설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대불청 동문 후원모임 생긴다

'만당' 결성 신행·재정자립 돕기로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역대 회원들의 신행 및 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모임 '만당(萬當)'을 결성한다. 대불청은 3월 1일 오후 1시 망우리 만해 스님의 묘역에서 '만당'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15·16대 대불청 회장을 역임한 배영진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만당'은 만인의 집이란 뜻으로 일제시대 만해 스님이 주축이 돼 독립운동을 하던 비밀 결사조직이다. 배영진 전 회장은 "현역 회원에서 물러났다고 청년불교 발전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결성하게 됐다"며 "현역 회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불청 산하 기구로 자체 수련회 개최, 기금마련 후원 행사, 회원들의 경조사 후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당'의 창당식은 6월 대불청 청년대회 행사때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불청은 3월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앙당에서 제22회 만해 백일장'을 개최한다. (02)738-3385 김주일 기자

21세기 문화정책위 발족 문화부 각계 15명 구성

문화관광부는 22일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자문을 위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월 1~2회 전체 회의를 갖고 문화정책 현안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강교자(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강준혁(추계예술경영대학원장) △김경호(향토문화진흥원장) △홍기삼(동국대 교수) △김홍식(명지대 교수) △박은주(김영사 대표) △성제환(계림종합지원센터 소장) △송미숙(삼신여대 교수) △이상만(다음문화예술기획연구원 이사장) △임영웅(연출가) △전명욱(코코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정무형(한림대 교수) △정진홍(서울대 교수) △주진숙(중앙대 교수) △주철환(이화여대 교수)

2001년 포교사 대학 입학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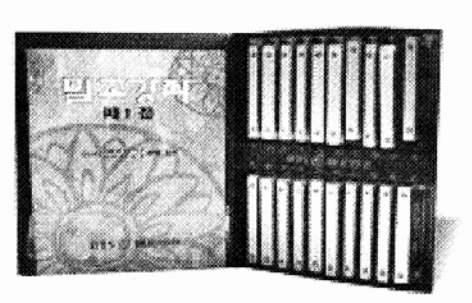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법)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2·3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강의시간**
주 2일 월·수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토요일)운영 ◎ **개강** : 3월 19일
-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사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사 2학기 - 근본불교, 이념담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학지론, 선문명승,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사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 **강사진**
무진정스님, 법신스님, 운곡스님, 오곡교수, 오형교수, 리영자교수, 서윤길교수, 박경준교수, 한정성박사, 이혜숙교수, 김시업박사, 김영교수 : 이보봉스님, 문보경스님, 노병산스님, 장경성스님, 구해스님, 최홍주박사, 최종천교수, 이건호회장, 김철희회장, 임선정회장, 허은박사, 박태일박사, 김일홍박사
- ◎ **모집 및 진영**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영향 사진 3매
- ◎ **진영방법** 서류전형, 신학선 등 록금 (1학기) 30만원
-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증,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인, 종단 추천 스님 (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이사장, 회장, 교수, 법사, 기타) 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수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이예철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헤정 대장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본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헤정 대장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 (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택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금주 : 최종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탕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면복·용사·만자부녀를 의장등록함.
- 2. 원단에 무기가 임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기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깥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 4. 바탕에도 여러가지 무기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제품명	성별	가격
저고리	남	130,000
바지, 조끼	남	130,000
누비 (상, 하)	남	180,000
누비방한복 (상)	남	130,000
누비조끼	남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남	180,000
바탕	남	30,000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33-1 (봉용빌딩 3층)
상담전화 (053)764-4114 / 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서북 토종 오가피

"오가피를 오래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건너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 동의보감 -

황토흙에서 10년이상 자란 무공해이며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100% 순수 국산 오가피입니다.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하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건강도 지키시고 농촌도 후원하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장주 백운찬

- ▲ 전화문의,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 주문시 전국 택배 배달.
 - ▲ 오가피 추출액, 요목분양.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55
전화 : 031) 681-5888, 7717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go.com/baeghj/